

“문화창조원 전시작 광주 도심에도 설치해 시민들과 교감”

목진요 예술감독 시민설명회...문화창조원 비전 제시

개관 콘텐츠, 미디어·영상·음향 조화 ‘ACT 페스티벌’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이 첨단미디어와 영상, 음향 등이 어우러진 개관 콘텐츠를 선보인다.

문화창조원 전시공간의 작품이 광주 도심에도 설치된다. 문화전당에서 선보이는 작품과 똑같은 내용을 담은 ‘쌍둥이’ 창작물이다.

문화전당 문화창조원(예술감독 목진요)은 21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문화전당 내 문화정보원에서 ‘상상원想像園, 아시아-Imaginary Circle, Asia’를 주제로 시민설명회를 열었다. 문화창조원 개관 콘텐츠는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을 융합한 창조생태계를 보여주는 전시로 꾸며진다. 문화창조원이 지향하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선보이는 내용이다.

문화창조원에서 가장 큰 규모인 복합 1관은 작가들에게는 첨단 미디어기기를 활용해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제작공간으로 활용되고 시민에게는 전시를 즐기고 작가들의 작업 현장을 가깝게 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 공간은 ‘The Ground’를 주제로 로 각종 멀티미디어와 융합 콘텐츠의 시연 및 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융합 콘텐츠 연구, 실험, 전시를 위한 특수 영상, 음향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개관 프로그램으로는 ‘ACT(Art& Creative Technology)페스티벌’이 열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디어 축제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프릭스(Ars Electronica Prix), 맵핑 페스티벌(Mapping Festival), 소나 페스티벌(Sonar Festival) 등 국제적인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작품을 소개하는 국제페스티벌 초청작 시리즈전이 열린다.

개관전에는 로이치 구로와카, 로지 이케다 등 해외 작가와 국내 작가들이 참여한다.

복합 2관은 ‘想像상상園 아시아로 공예, 건축, 패션, 가구, 영상 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더해 제작한 콘텐츠와 제작과정을 공개한다.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정보원에서 열린 ‘상상원想像園, 아시아-시민설명회’에서 시민들이 문화창조원 개관 콘텐츠 등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복합 3·4·5관은 아시아적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는 3개의 기획 전시가 열린다. 3관에서는 ‘프로젝트 유라시아’전이, 4관에서는 ‘마술/근대성 3부작’ 전시가

열리고 5관에서는 ‘국가를 묻는다’ 전시 열릴 예정이다.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창·제작센터는 국내외 다양한 연구진이 참여해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협업을

통한 연구가 이뤄진다. 목진요 예술감독은 “문화창조원의 일부 전시작품을 광주 도심에 설치해 주민들의 창조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문화전당의 창작물을 도심재생사업과 접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복 70주년 남북 축구·씨름대회 추진

정부, 광주 U대회 북한 참가 지원...백두대간 유네스코 등재 北과 협의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 축구·씨름대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7월 3~14일)와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체육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네스코 교육포럼과 국제철도협력기구시장단 회의, 세계도로대회 등 국내 개최 국제회의에도 북한을 초청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년)의 2015년도 시행계획(28개 세부과제, 85개 단위사업)을 보고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할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위원회’(가칭) 구성을 북한에 제안하고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행사 추진 북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체육 행사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축구를 비롯

해 명절 계기 ‘장사 씨름대회’를, 문화행사로는 ▲ 남북 예술인 공연 ▲ 거례말근 사진 ‘남북 공동 거례말 선언문’ ▲ 문화예술 공동 학술회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올해 7월에 개최되는 광주U대회와 10월에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씨름 등 남북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추진하고, ‘백두대간’(백두산~지리산)

진도 ‘진돗개 선수촌’ 준공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를 훈련시키는 요람이 될 ‘진돗개 선수촌’이 준공됐다.

진도군은 21일 진도를 동회리 진돗개 선수촌 앞에서 이동진 진도군수, 애견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촌 준

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북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올해 DMZ(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 착수를 목표로 남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남북 합의 전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초기단계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 드레스덴 구상 실천 ▲ 3대 통로(민생·환경·문화) 이행 방안 ▲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공식을 열었다. 선수촌 준공으로 체계적인 훈련과 진돗개 공원, 특수 목적견 육성 등으로 명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돗개 테파마크 일원 976㎡ 부지에 6억 원을 들여 건립된 선수촌은 지상 1층 규모의 훈련장과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고교+전문대 ‘유니테크 교육’ 도입

기업과 연계 일·학습 병행...전국 14개대 하반기 시범운영

특성화고교 3년과 전문대 2년을 통합해 기술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인 ‘유니테크’(Uni-Tech)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IBM과 뉴욕시립대의 IT 전문 고교·전문대 통합교육인 ‘뉴욕 피테크’(P-Tech)와 독일의 3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도를 모델로 구성된 유니테크는 특성화고, 전문대와 기업을 연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 학생은 고교와 전문대, 기업을 오가며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가 자격을 취득하고 노동시장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다.

고교 재학 때는 다양한 학기제에 따라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수업을 듣고, 고3 때에는 지정된 전문대에 출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고교 졸업 후 별도의 입시절차 없이 바로 전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는 유니테크 도입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 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은 대학입시 등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집중적인 직업교육을 받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16개 시범사업단을 선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니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대학 3~4학년 학생이 학기제 방식으로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장기 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인하대, 숙명여대 등 이달에 선정된 전국 14개 대학에서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남대, 변호사 110명 배출

로스쿨 개원 이래 역대 최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 로스쿨)은 최근 발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개원 이래 최다인 총 1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 중 입학 후 3년 만에 응시한 초시생은 70명(92명 응시)으로 76.1%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 로스쿨 평균 초시합격률인 74.7%를 웃도는 것으로 국립대 로스쿨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전남대 로스쿨은 ‘전남대 법과대학’을 이어받아 2009년 개원했으며, 전문 분야의 실무경험과 연구경력을 갖춘 교수진을 확보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총 42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치러진 세 차례의 변호사시험에서 85명 안팎의 합격자를 낸 데 이어 이번 4회 시험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모의고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부작용: 수술 초기 약간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중-59153호

시열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수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